

# ‘잠시만 안녕’ 두현석 “국대급 선수로 돌아오겠다”

지난 2018년 광주FC 입단 7년간 원클럽맨 자리매김 사회복무 위해 거제로 입대 내년 11월 소집 해제 예정

프로 입단 이후 줄곧 광주FC에서만 뛰 어온 ‘원클럽맨’ 두현석이 대체 복무를 위해 잠시 팀을 떠났다.

세미프로 K4리그 거제시민축구단에서 임대생으로 활약하며 국가대표에 승선할 수 있는 선수로 발전해 돌아오겠다는 다짐이다.

두현석은 지난 10일 경남 거제에서 대체 복무의 첫 발을 뗐다. 주간에는 사회복무요원, 야간과 주말에는 축구선수로서 1년 9개월간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살게 된다.

두현석은 입대를 떠나기 전에 전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반반”이라며 “주변에서 이제 뭔가 좀 풀리려고 하는데 군 문제가 흐름을 막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마음가짐은 제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임무이기에 즐기면서 재밌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8년 연세대 졸업 후 광주FC에 입단한 두현석은 2022년 K리그2 우승과 1부 리그 승격, 2023년 K리그1 3위와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 등 역사의 주역이었다. 하



광주FC 두현석이 최근 대체 복무를 위해 거제시민축구단 임대를 앞두고 전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지만 지난해 7월 어깨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르면서 아쉬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지난 시즌 최종전에서 4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렀다. 스스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팀에 도움은 된 것 같다”며 “ACLE를 뛸 수 없었던 건 아쉽지만 그게 현실이다. 현실을 인정하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상 공백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지만 이 또한 새로운 배움의 기회이기도 하다. 2020년과 2021년 부상에 고생했던 두현석은 체지방 조절과 마인드 컨트롤 등 관리법을 터득했다.

그는 “두 시즌 동안 부상으로 고생하면

서 어떻게 몸이나 마음을 관리하는지 경험히 쌓였다”며 “마음을 편안히 먹고 휴식 하되 복귀했을 때는 팀에 빠르게 도움이 되자는 생각이다. 지난 시즌에도 매일 산책하고 식단 조절을 하면서 체중 관리를 꾸준히 했다”고 설명했다.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있는 중에도 꾸준히 몸 관리에 노력한 두현석은 복귀 직후 실전을 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지난해 11월24일 전북현대모터스와 나온 K리그1 2024 파이널 라운드 최종전에 선발 투입돼 79분을 소화했다.

그는 “3~4일 전에 출전 여부를 알 수 있

는데 선발 쪽에 이름이 있었다. 체중 관리가 경기 준비에도 도움이 된 것 같다”며 “경기에 나서니까 몸 상태가 정말 좋았다. 30분 정도만 뛸 줄 알았는데 감독님께서도 좋게 봐주신 것 같다”고 복기했다.

두현석이 복귀전에서도 공백기가 느껴지지 않는 경기력을 선보인 데는 코칭스태프의 격려도 영향을 미쳤다. 이정호 감독과 김경도 피지컬 코치 등이 긍정적인 힘을 실었다.

두현석은 “감독님께서 ‘내가 와서 축구가 재밌다’고 하셨는데 정말 큰 힘이 됐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실제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며 “피지컬 코치님도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항상 얘기해 주시는데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임무를 시작한 그는 거제시민축구단에서 이호인(전 충남아산 FC), 임은수(전 대전하나시티즌), 김준형(전 김포FC), 김주현(전 전남드래곤즈), 이태희(전 인천유나이티드), 이광혁(전 수원FC), 강재우(전 부천FC1995) 등과 호흡한다. 세미프로 소속이지만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선수층이다.

두현석은 “광주FC에 복귀해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소집 해제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처음 이야기하는 목표가 있다. 마음속에 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이루기 위해 꾸

준히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두현석이 언급한 목표는 연계 플레이와 크로스, 태클에서의 성장이다.

이 세 가지를 성장시켜 복귀한다면 국가대표까지도 노릴 수 있을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두현석은 입대 직후 주장이라는 중책을 맡았고, 지난 23일 서울중랑 축구단과 K4리그 데뷔전에서는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이호인의 쇄기골을 도왔다.

그는 “송홍섭 감독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미드필더도 병행하고 싶다. 지난 시즌 이정호 감독님께서 중앙으로의 침투를 많이 주문하셨는데 이행하지 못한 것 같다”며 “크로스로 K리그에서 최정상을 찍고, 태클도 자유자재로 하고 싶다. 국가대표라는 목표를 이루고 새로운 꿈을 꾸고 싶다”고 강조했다.

7년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광주FC 팬들에 대한 감사함도 전했다. 또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복귀 후 최고의 모습에 대한 약속도 내놨다.

두현석은 “제가 광주FC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좋아해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다. 광주FC의 일원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보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경기장에서 즐거움을 드리는 것뿐이다. 2년 뒤에는 경기장에 더 많은 팬들이 찾아오시게끔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글·사진·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전남도청 펜싱팀이 지난 18~21일 강원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27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에페 개인전 우승과 단체전 준우승을 거둔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 전남도청 에페 박소형, 올해 2관왕 쾌거

남녀선수권 개인전 제패 단체전서는 준우승 합작

전남도청 펜싱팀 박소형이 제27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에페 개인전 정상에 오르며 올해 2관왕을 차지했다.

박소형은 지난 18~21일 강원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이수빈(화성시청)을 15-9로 완파하고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박소형은 지난달 2025 전국남녀종목별오픈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여자 에페 개인전을 제패했다.

박소형은 32강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16강에서 팀 동료인 박새롬을 15-10으로, 8강에서 노선경(충북도청)을 15-13으로, 준결승에서 박하빈(충북도청)

을 15-11로 연파했다.

결승에서는 이수빈을 상대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했다.

박소형은 김향은·박새롬·선재희와 호흡을 맞춘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청은 8강에서 경기도청을 45-30으로, 준결승에서 부산시청을 45-41로 각각 물리쳤으나 결승에서 광주서구청에 40-45로 석패했다.

김용을 전남도청 펜싱팀 감독은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 정말 기쁘다”며 “박소형 선수가 개인전을 우승하고 팀이 단체전에서 준우승한 것은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다.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

## ‘36세’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 7년 만에 월드컵 금메달

남자 매스스타트 제패

‘살아있는 전설’ 이승훈(36·알펜시아)이 2024-2025 ISU(국제빙상경기연맹) 월드컵 스피드스케이팅 5차 대회에서 약 7년 만에 금메달을 사냥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승훈은 24일(한국 시간) 폴란드 우치 토마슈프마조비에츠키 아레나로 도와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7분48초05의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다.

20명의 선수 중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이승훈은 스피린트 포인트만 60점을 획득해 바트 홀버프(네덜란드·7분48초51)와 안드레아 지오바니니(이탈리아·7분48초57)를 제쳤다.

이승훈이 이번 시즌 월드컵 메달을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금메달은 2017년 12월 열린 2017-2018 ISU 월드컵 스피드스케이팅 4차 대회 남자 매스스타트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번 경기에서 이승훈은 레이스 초반 체력을 비축하며 차분한 운영을 선보였다. 일부 선수들이 속도를 올리며 흐름을 흔들고자 했으나 인내심을 갖고 버텼고, 피니시를 네 바퀴 남길 때까지 16위에서 레이스를 진행했다.

힘을 아낀 이승훈은 두 바퀴를 남기고 치고 나갔다.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순식간에 3위까지 치고 올라갔고, 마지막 바퀴 첫 번째 곡선 주로에서 아웃코스(스위스)까지 제치며 선두를 탈환한 뒤 가속도를 붙이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한규빈 기자

↑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팀 이승훈이 2024-2025 ISU 월드컵 스피드스케이팅 5차 대회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국제빙상경기연맹 페이스북 캡처

## KIA, 다문화 가족 주말 야구 체험 캠프 성료

KIA타이거즈가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야구 체험 캠프를 올해도 뜨거워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KIA는 이번 캠프를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함평-기아챌린저스필드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총 세 차례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총 30명의 광주와 전남 지역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참가했다.

캠프 참가자들은 주차별 프로그램에 따라 체력과 주루, 타격, 수비 등 기술 훈련을 받은 뒤 마지막 주차에는 자체 흥백전

을 진행했다. 이들은 자체 흥백전을 대비해 전력 분석에 나서는 등 열정적인 참여도 눈에 띄었다.

KIA는 이번 캠프 참가자 전원을 올 시즌 중 홈경기에 초청할 예정이며 자체 흥백전 MVP로 선정된 박해성군과 최정우군은 각각 승리 기원 시구와 시타를 맡게 된다.

한규빈 기자